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**2024. 6. 4.(화) 09:50** (2024. 6. 4.(화) 석간)

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

- 이성희 차관,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

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.4.(화) 「**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**」 시범 수행 지역인 **서울디지털산업단지**에서 **기업 간담회**를 개최하고,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**현장의 의견을 청취**했다.

육아휴직·유연근무 등 일·가정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**정부의 노력**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에서는 일·가정양립제도에 대한 **인지도*·활용률****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.**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「**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**」을 시범 운영한다.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**관련 제도를 밀착 홍보**하고, 대체인력·컨설팅 등 **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**할 예정이다.

* **기업 규모가 작을수록** 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('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)

** 피보험자 1천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교(기업 규모별)
(300인 이상) 9.5 > (299~100인) > 8.9 > (99~50인) 7.3 > **(50인 미만) 6.0**

오늘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**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**을 줄 수 있도록 일·가정양립에 대한 **현장 기업의 애로사항·지원수요**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.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에 이러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 사업 모델을 구축한 뒤, 내년에는 이를 **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**이다.

이성희 차관은 "올해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제도를 **몰라서 못 쓰거나 경직된 기업문화**로 인해 못 쓰는 경우가 **없도록 하는 것**"이라고 말하며, "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**모든 정책역량을 집중**하겠으며, 성과 창출을 위해 **유관기관**의 **유기적 협업도 당부**드린다"라고 말했다.

<붙임1> 현장 간담회 개요
<붙임2>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	책임자	과 장	장중서	044-202-7962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	044-202-7969

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개벼운 질환은 동네 병+의원으로
대한민국정부 ☎129 / www.e-gen.or.kr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현장 간담회 개요**

□ 일시/장소

○ **(일시)** 6.4.(화) 09:50~10:50(60분)

○ **(장소)**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6층 화상회의실

*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

□ 참석자

○ **(정부) 차관**, 통합고용정책국장, 서울관악고용센터 소장 등

○ **(기업)** 산단 내 입주기업 5곳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

* ㈜태양기술개발, ㈜지오그린21, ㈜인라이플, ㈜사이버텔브릿지, ㈜코어트러스트

○ **(유관기관)**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등

□ 내용

○ 일·가정양립제도 활용 관련 **기업 애로사항** 및 **지원 필요사항,** 중소기업 대상 **일·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방안**

□ 세부 일정 ※ 행사 전체 공개

시 간		주요 내용	비고
09:50 - 09:55	5’	‣ 인사 말씀	차관
09:55 - 10:45	50’	‣ 간담회 진행	참석자 전원
10:45 - 10:50	5’	‣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	차관

붙임2 **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**

[인사말씀]

□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.
바쁘신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

[추진 배경]

□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
초저출산('23년 0.72명)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.
통계청에 따르면 15년 뒤에는
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·도에서 인구가 줄어들 예정입니다.
* 2022-2052 시·도별 장래인구추계(통계청, '24.5월)

○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·가정양립을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유연근무를 확산*시키고, 육아지원**을 확대하고 있으며,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유연근무 컨설팅, 인프라 및 장려금 지원,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
*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% 지원범위 확대(5시간 → 10시간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근로자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

□ 하지만,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.

○ 특히, 전체 기업의 99%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,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*,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이 저조**한 상황입니다.

* 제도를 모르는 기업 비율: 육아휴직 12.9%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9.4%, 난임휴가 42%, 가족돌봄휴직 39.3%, 가족돌봄휴가 42.7%('22 일·가정양립 실태조사)

** 피보험자 1천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비교(기업 규모별)
(300인 이상) 9.5 > (299~100인) > 8.9 > (99~50인) 7.3 > (50인 미만) 6.0

□ 이에,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 등에서 일·가정양립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「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」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.

[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당부사항]

□ 「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」의 핵심 목표는
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관련 제도를 몰라서 못 쓰거나
경직된 기업문화로 인해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이를 위해,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밀착 홍보,
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입주기업 수요에 맞는
유연근무 등 인사노무 관리 방안 및
일·가정 양립제도 활용 방안 마련,
대체인력 활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○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일 · 가정 양립제도를
편하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하여
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.

□ 오늘 참석하신 기업과 유관기관 분들께도
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
❶ 올해 시범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
일·가정양립을 모범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
산업단지 내에 널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

○ 다시 말해, 이웃 기업이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고
육아휴직과 대체인력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,
이를 따라 '우리 기업도 할 수 있다' 는 분위기가
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이를 위해, 정부와 함께 산업단지별 · 업종별 우수사례를
만들고 확산하는데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❷ 아울러, 우수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
오늘 참석하신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합니다.

○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홍보, 필요한 컨설팅 및
다양한 정부지원이 적기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
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오늘 간담회의 의미 및 마무리 말씀]

□ 오늘 간담회는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
현장의 귀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
○ 특히, 「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」은
내년부터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,
올해 시범사업부터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방안,
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.

□ 「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
정부와 여기 계신 기업과 유관기관들이
원팀(one team)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○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
정부가 먼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○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
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